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국정원·삼사관학교서 한국전쟁 58주년 맞아 천도법회 봉행

한국전쟁 발발 58주년을 맞은 6월 25일, 국가정보원과 육군 삼사관학교에서는 호국영령과 전몰장병을 추모하는 법회가 나란히 열렸다.

국정원 불자모임인 세기법우회와 국정원 퇴직 불자모임인 양지법우회는 이날 국가정보원 내 소강당에서 회원 100여명과 구룡사 신도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호국영령·순직직원 천도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세기법우회 S회장은 봉행사에서 “이번 천도법회를 통해 자신의 탐진치를 돌아보고 국민을 받드는 민족의 공복(公僕)으로 거듭나겠다”며 “어렵고 힘들어도 보훈보살의 인육바라밀로 이겨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양지법우회 Y회장은 봉행사에서 “1700년 호국불교가 나라를 지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이번 천도법회는 6·25를 맞아 국정원 순국영령뿐만 아니라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모든 영가를 위한 법회로 매년 계속해 나갈 것”이라



6월 25일 국정원에서 열린 ‘호국 영령·순직 직원 천도추모법회’ (왼쪽)와 육군 사관학교에서 봉행된 ‘전몰 장병 위령 천도제’.

고 밝혔다.

수불 스님은 영가법문을 통해 “산 영가와 죽은 영가가 다르지 않기에, 지금 우리 또한 천도해야 한다”면서 “이번 천도법회로 자신을 천도하는 새로운 안목을 열어 국가 안보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를 위해 일하지만 이름조차 드러낼 수 없는 국정원 전현직 불자들은 발원문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국가안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구룡사 합창단은 남 모르는 곳에서 묵묵히 국가를 위해 일하다 순국한 영령과 직원들을 위해 아낌없는 음성공양을 올렸다.

한편, (재)대한불교일부종교종(총무원장 지공)이 주최하고 영주 관음사가 주관한 ‘호국 전몰장병 위령 천도제’가 같은 날 영천 육군 삼사관학교(교장 손무현 소장) 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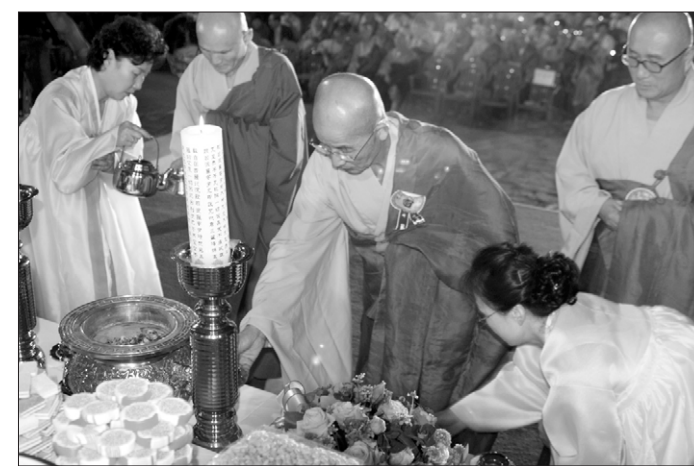
성호국사(주지법사 해산) 대법당에서 봉행했다.

이번 법회에서 관음사 주지 도기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자비정신으로 호국영령의 회생정신을 되새겨 안정된 미래를 준비하자”고 말했다. 이어 법회를 후원한 삼사관학교 손무현 교장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 몸 바친 호국 영령들을 위해 추모 대법회를 열어주시는 불자들에게 후배로서 감사의 인사를 올린

다”고 추모사를 했다. 이날 법주인 일부종교종 총무원장 지공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불보살의 위신력으로 고통받는 호국 영가를 천도하는 것은 불교만의 고귀한 자비행이다. 항상 불자로서 국가의 안정을 위해 기도하자”고 법문했다.

이날 영주 관음사신도회는 장병들을 위한 교육자료 위문품도 전달했다.

김성우·노덕현 기자



6월 24일 봉행된 사도세사 246주기 제향에서 헌다하는 조계종 원로의원 정무 스님.

‘사도세사’ 제향 복원

화성 용주사, 100년만에 불교식 봉행

뒤주에 갇혀 흉서(龕逝)한 사도세사가 100년 만에 용주사의 제향을 흠향(歆饗)했다. 화성 용주사(주지 정호)는 6월 24일 오후 7시 사도세사의 246주기 제향을 봉행했다. 문중이 아닌 사람이 봉행하는 제향으로는 100년 만에 복원된 행사였다. 1789년 사도세사의 묘가 지금의 용릉으로 옮겨진 뒤 능찰로 건립된 용주사는 지난해 정조대왕의 제향을 복원하는 등 효행도량의 맥을 이어 오고 있다.

용주사가 주관하는 사도세사의 제향은 국보 제120호인 용주사 범종을 다섯 번 울리는 것으로 시작해 독경과 헌다례·부모은중경 봉독·헌화 등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행사에서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백행의 근본인 효를 몸소 실천해 보인 정조대왕은 오늘날까지도 귀감이 되고 있다”며 “정조대왕과 사도세사의 제향 복원은 용주사의 존재 이유를

찾는 것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용주사는 사찰의 원형을 회복하고 효행본찰의 위상을 고양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홍살문을 복원하고 호성전의 현판도 제막했다. 사찰 내에 홍살문이 서 있는 경우는 용주사가 유일하다. 용릉의 능찰인 용주사 대웅보전 옆에 사도세사와 혜경궁 홍씨, 정조와 효의왕후 등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호성전 이 있기 때문이다. 효행의 의미가 깃든 홍살문을 복원한 용주사는 이날 제향에서 효문화 비전도 선언했다.

제향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정무 스님, 안양호 경기부지사, 박보환 김성희 국회의원, 전무송 경기도 문화의전당 예술감독, 정수자 시인, 이석 황실문화재단 총재, 오근택 오산시문화원장, 홍기현 수원시의회의장, 박천복·진재광·백승대 경기도의원 등 1000여명이 참여했다.

임연태 기자

“아이 걱정 말고 일요법회 오세요”

능인선원, 5세이상 자녀 베이비시팅 서비스

서울 능인선원(원장 지광)이 일요법회 시간동안 어린 자녀들을 돌봐주는 서비스를 실시해 눈길을 끈다.

능인복지관은 6월 22일 일요법회를 시작으로 매주 5세 이상 자녀를 일요법회 시간(오전 10시~오후 1시)동안 베이비시팅해주는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능인복지관 관계자는 “일요법회 때 복지관 유아센터로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오면 복지자들이 아이를 돌봐드린다”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보호자가 맡기고 가야 하며, 법회가 끝나면 데리러 와야 한다”고 말했다.

능인선원의 일요법회 베이비시팅은 어린 자녀 때문에 법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젊은 부모님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육은 아이 때문에 법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다른 사찰의 신도들이나, 법회 참석을 때문에 고민했던 주지 스님들이 벤치마킹할만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02)571-2988

김성우 기자

생활불교조계종 첫 주지연수 교육

백암 한화리조트서 개최

생활속의 불교를 종지로 하는 (사)생활불교조계종(총무원장 도선)이 창종 후 첫 주지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총본산인 경북 영양 관법사에서 입제한 주지연수교육은 200여 종도가 참석한 가운데 ‘Wake up 일어나라 눈을 뜨자’를 주제로 6월 24~26일 2박 3일간 백암 한화리조트에서 진행됐다.

입제식에서 부종정 정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본은 교육이다. 신념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총무원장 도선스님은 “생활불교를 기치로 중생포교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6월 24일 영양 관법사에서 열린 생활불교 조계종 주지연수 입제식.

승가교육이 기본이 돼야 한다”며 “과거 나태한 자세를 버리고 참마음으로 깨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지연수에서는 안도 스님

(조계종 前 포교원장)의 ‘생활불교 실천’에 대한 강의와 제반 불교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직장직능 연합신행단체 임원수련대회

7월 5~6일 김천 직지사서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종)은 오는 7월 5~6일 김천 직지사 만덕전에서 ‘직장직능 연합신행단체 임원수련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련대회는 수련프로그램과 특강, 화합의 장 등을 통해 신심증장과 더불어 각 연합단체 임원진간의 친목 도모와 체원된 직장직능불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1년 이후 7년만에 열린

직장직능 연합신행단체 수련대회는 임제식을 시작으로 종교환경변화에 따른 신행단체 임원들의 역할과 사상체질에 따른 조직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을 주제로 한 2차례의 특강, 1080배 참회정진, 화합의 장, 조계종 포교원장 혜종스님의 법문, 견기명상, 참선 등으로 진행된다.

수련회에는 각 신행단체별로 5~20명의 임원진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02)2011-1891

김성우 기자

구독신청·기사제보 | 02-2004-8200

참선단식

간화선의 생활화와 단식수련

단식과 간화선체험

시원한 제주앞바다에서 만나는 간화선 삼매체럼 단식수련

간화선과 금강단식의 진행과 특징

몸에 끄달리면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 -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수행이다.

일상의 삶을 통해 접근하는 간화선 수행의 지름길을 찾는다.

생활 속에서 화두참구로 공부 힘을 얻고 삶의 방향을 세운다.

- 일상에서 바로 들어가는 간화선 생활화 6박 7일 동안에 공부 힘을 얻을 수 있다.

- 공부 힘이 생기면 생활이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공부 힘은 운명과 천성에도 좌우되지 않으므로 사주팔자를 한탄할 필요가 없다.

업장과 습관도 본래공적하다.

단식의 신체적 자극을 통해 외부로 향한 타성을 내면의 세계로 회복하는데

대단히 뛰어난 수행이다.

참선과 단식수행으로 사고의 틀을 열고 무한자재의 절대근원의 자아를 회복한다.

1. 체질개선 해독 피부미용 아토피 체중감량(일 최고3kg) 고혈압 당뇨 위장 대소장 심장 간장 폐 신장 치료 예방 절연 등 부작용 없는 다양한 효과. 예비단식 보식이 필요 없음
2. 자아통찰로 운명 천성이 바뀐, 심신개벽 자신감 신념증대 창의성 능력개발 성격개조 우울증 신경쇠약 정서안정 공포불안 대인관계 인내심 집중력 기억력
3. 단식은 마음으로 한다. 몸과 마음은 나누어지지 않는다. 단식으로 부담 없이 가볍게 화두참구에 들어간다.
4. 신체 정신부담을 줄인 정진과 단식병행 - 몸과 마음은 나누어지지 않기에 가능하다.
5. 바로 끊고 바로 먹는 금강단식. 단식 부담은 최소 위험부담은 없음.
6. 단식 전 예비단식, 단식 후 보식이 전혀 필요 없음.
7. 물만 마시고 난치병 성인병을 치료할 수 있다.
8. 하루일과 - 선법문 좌선 행선 운동 묵언 취침

가. 홈페이지 www.wseon.com / 원명선원.kr

나. 대상 및 일정 : 일반인 60세한(6박 7일) ◆17차 → 08. 7. 29 ~ 8. 4 ◆27차 → 08. 8. 8 ~ 8. 14

다. 회비할인 : 7월 15일까지 접수시 회비의 30%할인(홈페이지 수련회 안내문의 내용에 따름)

라. 입금계좌 : 농협 953-17-000706(예금주-원명선원)

마. 접수후 항공편을 속히 예약바람(제주도외 지역해당)

바. 연락처 : 제주시 화북 1동 원명선원(교대원) ☎ 064)755-3322